

Partnering with Jesus: Faith for Supernatural Increase in Finances

예수님과의 동역: 재정의 초자연적인 증가에 대한 믿음

I. THE IMPORTANCE OF GROWING IN FAITH

믿음의 성장의 중요성

- A. Jesus taught on the importance of faith as a foundational principle in the kingdom of God. We will experience more of His kingdom activity and Jesus' provision for us, and we will enjoy our relationship with Him more—as we believe Him for more of His promises.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원리로써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들을 더욱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더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¹³*Jesus said to the centurion, "...as you have believed, so let it be done for you."* (Mt. 8:13)

¹³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마 8:13)

²⁹*Then He touched their eyes, saying,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to you."* (Mt. 9:29)

²⁹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마 9:29)

- B. We must intentionally cultivate growing in faith by hearing and speaking God's word (Rom. 10:17).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함으로 의도적으로 믿음을 성장하고 기경해나가야 한다 (롬 10:17)

¹⁷*So then faith comes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Rom. 10:17)

¹⁷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17)

- C. Jesus described how faith operates. He indicated that we receive our answers to prayer in two ways. First, we “receive” them in the spirit realm (v. 24b), and then we “have” them in the natural (v. 24c) when we see them with our eyes. We need to be aware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piritual and the natural realms to understand how prayer works.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음을 말씀하셨다. 첫째, 우리는 이 응답들을 영적인 영역(24b 절)에서 “받게(receive)”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것을 자연계의 영역 안에서 “소유하게(have)” 된다 (24c 절).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영적인 영역과 자연계의 영역 사이의 구분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

²³*"...whoever...believes that those things he says will be done, he will have whatever he says.* ²⁴*Therefore, I say to you, whatever things you ask when you pray, believe that you receive them [in the spirit], and you will have them [in the natural]."* (Mk. 11:23-24)

²³ ...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²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연계 안에서] (막 11:23-24)

- D. Faith is the substance (title deed) of what we possess in the spirit before it manifests in the natural. Biblical promises are like a “title deed” to what we already possess in the spirit.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연계에 나타나기 전까지의 실체(권리 증서)이다.
성경의 약속들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권리 증서”이다.

¹*Now faith is the substance [title deed]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Heb. 11:1)

¹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권리 증서]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 E. When Scripture states that God *hears* our prayers, it means that He *approves* of our requests. When we pray according to God’s promises and His will, we can have confidence that He approves of the request. It is at this time that we “receive” the request in the spirit realm.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이는 그분이 우리 간구들을 인정(승인)하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이 이 간구들을 승인하신다는 확신(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 간구들에 대해 영적인 영역에서 “받는” 때이다.

¹⁴*Now this is the confidence that we have in Him, that if we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He hears us. (1 Jn. 5:14)*

¹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4)

- F. We are to engage in faith for God’s promises or our requests that we have “received” in the spirit. Jesus spoke of continually believing that we have received the “title deed” (in the spirit realm) to our prayer requests as the condition for receiving them in the natural realm. The devil seeks to overwhelm us with guilt, fear, or unbelief so that we do not persistently engage in faith.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우리 간구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자연계 안에서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이 간구들에 대해 (영적인 영역에서) “권리 증서”를 받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감과 두려움, 불신으로 사로잡기를 원하는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 G. We must confess the Word over our heart and circumstances and against the works of the enemy.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에 대해, 그리고 원수의 역사에 대적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 H. We are to ask with persistence (Lk. 11:8), or continually remind God of His promises (Isa. 62:6). We remind Him of and thank Him for what He has given us in the spirit realm.

우리는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눅 11:8),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사 62:6). 우리는 그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그분이 기억하시게 해야 하며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⁶*“...you who remind the Lord, take no rest for yourselves; ⁷and give Him no rest until He establishes [what He promised]...” (Isa. 62:6-7, NASB).*

⁶ ...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⁷ 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대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친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 I. Prayer is not about informing or persuading God, but about conversing and connecting with Him relationally with faith as we believe His Word about what He releases to us in the spirit realm.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거나 그분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며, 그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께 관계적으로 연결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II. FAITH AND FINANCES

믿음과 재정

- A. Jesus taught that God returns blessing to us in proportion to the measure of our giving (Lk. 6:38). Money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themes in the Bible. We are called to believe that He will provide us with a greater ability to give to His kingdom and others so we might express more love.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드린) 양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돌려주심을 가르치셨다 (눅 6:38). 돈과 재정은 성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³⁸*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will be put into your bosom. For with the same measure that you use, it will be measured back to you.” (Lk. 6:38)*

³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8)

- B. The Father is looking for partners to be a “source of supply” for His kingdom purposes.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나라의 목적들을 위해 “공급원”이 될 파트너들을 찾고 계신다.

“He who sows sparingly will reap sparingly, and he who sows bountifully will reap bountifully. (2 Cor. 9:6)

⁶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 9:6)

- C. Our love for Jesus is not minimized by believing God’s promises to bless our bodies and finances so that we can partner more with Him in the building up of His kingdom.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재정을 축복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있어 그분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축소시키지 않는다.

²*I pray that you prosper in all things and be in health, just as your soul prospers. (3 Jn. 2)*

²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 D. Giving involves emotional dynamics that cause us to wrestle with who we trust as our ultimate source—the Lord or ourselves? Faith and fear are the spiritual battlefield in our every-day life. Our emotions are deeply engaged and openly expressed through the way we handle our money.

주는 것은 우리 안에 감정적인 변화들을 일으키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공급원으로서 누구를 (주님, 혹은 우리 자신)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씨름하도록 한다. 믿음과 두려움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영적 최전방의 영역이다.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²¹*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t. 6:21)*

²¹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III. GOD'S PROMISE OF AN OPEN HEAVEN

열린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 A. God promises to open the financial windows of heaven (supernatural) and to rebuke the devourer if God's people will obey and believe Him with their money. He commands His people to bring in all the tithes. Tithing speaks of giving 10% of all of our financial resources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재정에 있어서 그분을 순종하고 믿을 때, 하늘의 (초자연적인)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며 재정을 삼켜버리는 것들을 꾸짖으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십일조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신다. 십일조는 우리의 모든 재정 자원의 10%를 하나님 나라에 주는 (드리는) 것을 말한다.

¹⁰“Bring all the tithes into the storehouse, that there may be food in My house, and try Me now in this,” says the LORD of hosts, “If I will not open for you the windows of heaven and pour out for you such blessing that there will not be room enough to receive it. ¹¹I will rebuke the devourer for your sakes, so that he will not destroy the fruit...” says the LORD of hosts. (Mal. 3:10-11)

¹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봇지 아니하나 보라 ¹¹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 3:10-11)

- B. Giving with faith releases God's activity in our lives (spiritually, relationally, financially, etc.). God requires tithing because His people often *default to fear* related to their money. Fear refuses to give financially; this shuts down the process of supernatural multiplication. Tithing is the beginning, not the ceiling, in our giving and connecting with God in our money.

믿음으로 주는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놓게 된다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등).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종종 재정에 대해 결핍의 두려움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나누는 것을 막는다; 이는 초자연적인 배가의 과정을 닫아버린다. 십일조는 우리가 재정을 주며 (드리며)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아닌, 시작이다.

- C. We refuse the spirit of poverty with its *mentality of lack*. We can overcome fear related to money by operating in the opposite spirit as we give with faith. Our only limitation is God's will for each of our lives, not our own ability to make money.

우리는 결핍의 마음을 가진 가난의 영을 거절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돈을 주는, 정반대의 영으로 운행하면서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제약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자신의 돈 버는 능력이 아니다.

IV. QUESTIONS FOR SMALL-GROUP DISCUSSION (E. G., FCF FRIENDSHIP GROUPS)

SMALL-GROUP 소그룹 토론을 위한 질문들 (FCF 프랜십 그룹)

1. Identify one point that inspired or challenged you. Why? What will you do differently to apply it?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도전이 되었던 부분 한 가지를 말해보십시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2. Identify one point that you want to impart to a younger believer. Why? How will you approach this?

당신보다 어린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를 말해보십시오. 왜입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3. Identify one point that you would like to gain more understanding of. How will you seek to gain it?

당신이 더 이해하고 싶은 부분 한 가지를 말해보십시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